“환난이 내게 미쳤으나 나를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남부 산사태 피해 눈덩이…사망자 최소 약 230명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사태로 사망자가 약 23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남부 고파 당국은 계속된 폭우로 인해 이날 오전 산사태가 두 번 연달아 발생해 최소 22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남성 148명, 여성 81명이다.

산사태가 발생한 고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450㎞ 떨어진 곳이다. 당초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망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당시 첫 번째 산사태 이후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자들을 구하던 와중 두 번째 산사태가 발생해 이들도 같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행정관인 다게마위 아예레는 “희생자 대부분이 초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집의 주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매몰됐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EBC는 다게마위의 말을 인용해 “인명 구조 작업을 위해 달려간 지역 행정관, 교사, 보건 전문가, 농업 전문가 등이 재난으로 사망했다”고 부연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수백 명이 현장에서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며 생존자들을 찾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산사태에 구조된 사람은 최소 5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구할 장비는 삽이 전부이고 대부분 맨손으로 땅을 파내는 수준이다.

고파 출신으로 케냐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은 AFP통신에 “재난이 일어난 지역은 시골이고, 외진 곳이며 산이 많다”며 “토양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폭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토양이 즉시 아래 땅으로 흘러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재난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장마철에 해당 지역의 산사태와 폭우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인구 약 1억 2,000만 명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홍수, 가뭄 등 기후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유엔 인도적지원조정실(OCHA)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남부에서는 지난 4-5월 계절성 호우로 인한 홍수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5월에는 홍수로 1만 9,000여 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1,000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다고 OCHA는 밝혔다(출처: 뉴스1 종합).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시편 119:143-144)

하나님, 에티오피아 외진 시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구조 작업에 나선 사람들까지 흘러내린 토양에 묻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속히 건져주십시오. 구조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땅을 파며 환난으로 인해 먹먹한 가슴으로 낙담해 있을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계시하사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재해에 취약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이때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영혼 구원에 힘써 주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스위스, '안락사 캡슐' 사용 전망

버튼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데일리안이 19일 AF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안락사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는 곧 스위스에서 조력사 캡슐 '사르코'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처음 공개된 사르코는 캡슐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바꿔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용자가 기계 안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 초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현지 매체는 이달 내 사르코가 사용될 예정라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더 라스트 리조트 최고경영자(CEO)인 플로리안 월렛은 "사람들이 실제로 줄을 서면서까지 사르코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면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소가 없는 공기를 마시다가 영원히 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브리서 9:27-28)

하나님, 자살을 조장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죽음의 캡슐이 영원한 잠에 빠지는 것이라고 거짓말로 사람을 호리는 안락사 단체와 이 일을 허용하는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죽음 뒤에 임할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의 심판은 알지 못한 채 안락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자멸의 길을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신 십자가의 속량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 한국, 친족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자기방어력 없는 10세 이전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세 이하로 친족 성폭력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른 나이에 이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2010년 최초로 설치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6명의 입소 아동·청소년 중에는 10세 이하 연령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다. 11세가 17.4%, 12세가 14.2%, 13세가 10.4%로 뒤따르는 등 13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78.5%에 달했다. 친부의 가해 비율이 58.0%로 가장 높았고, 친오빠 14.5%, 의부 혹은 모친의 동거남 12.7%, 친인척 6.8%, 동거 친족 4.1%, 기타 3.8% 순이었다. 친부와 의부 등 '부에 의한 성폭력'이 70.7%를 차지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한3서 1:11)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할 가족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소식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이 악한 세대를 꾸짖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어린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오니 이들을 복음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친히 몸으로 선을 행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증인이 되어 선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로 선을 행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페루 아마존의 ‘문명 미접촉 부족’ 모습 포착…영상 공개돼

남미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원주민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을 거점으로 두고 활동하는 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은 최근 아마존 지역 ‘마슈코 피로’ 부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로이터통신과 미 CNN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 서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긴 도구를 들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도 보인다. 이들은 마슈코 피로 부족민으로, 이 희귀한 이미지는 지난달 말 한 벌목 회사가 벌목권을 가진 곳과 가까운 페루 남동부 마드레데디오스 지역 강둑에서 찍은 것이라고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전했다.

브라질 가톨릭 원주민선교위원회의 로사 파질랴는 로이터에 “1년 중 이맘때쯤 해변에서 그들은 아마존 거북이 알을 가져간다”며 “최근엔 브라질 국경 쪽에서도 마슈코 피로 부족민이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원주민 단체인 페나마드(Fenamad)는 이 부족이 최근 몇 주 동안 열대우림에서 식량을 찾아 더 자주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 “벌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 새로운 질병을 가져와 마슈코 피로 부족을 황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벌목꾼과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최근 마슈코 피로 부족민 50여 명이 또 다른 원주민인 이네 부족민 마을 근처에서 목격된 데 이어 인근 푸에르토누에보 마을에서도 17명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원주민 단체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페루 정부는 아마존 일대에 퍼져 있는 마슈코 피로 원주민 수를 약 75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에 따르면 이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벌목 회사 인증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영상은 벌목꾼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많은 마슈코 피로 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도주의적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베드로후서 3:12-13)

하나님,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질병과 삶의 터가 황폐해질 위기 앞에 놓인 아마존 원주민 마슈코 피로 부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는 이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모든 자들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외하도록 복음 앞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슈코 피로 부족에게 하루빨리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이 아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미얀마 만달레이, 한 달간 전쟁 난민 15만 명 유입…임차료 두 배로 증가

쿠데타 군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이 격화하면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25일 전했다. 최근 한 달간 만달레이시로 유입된 전쟁 난민만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원단체는 난민들이 치솟은 집세와 식비, 일자리 부재, 군부 갈취 등으로 절망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주택 임차료는 한 달 만에 두 배가 됐다. 가장 저렴한 11㎡ 규모 월세가 한 달 만에 5만 짯(1만 4,000원)에서 10만 짯(2만 8,000원)으로 올랐다. 한 관계자는 "6월 말부터 사람들이 만달레이로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며 "실향민들은 높은 임차료를 감당할 형편이 안 돼 거처 마련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한1서 4:10-11)

하나님, 군부와 반군 간의 내전으로 갑자기 난민들이 급증한 만달레이와 미얀마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길을 찾아 떠나온 실향민들을 돌봐주시길 간구합니다. 속히 이 잔인한 전쟁을 멈춰주시고,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절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을 돕는 지원 단체에 지혜를 더하시고 몸 된 교회의 섬김과 사랑이 지속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본향 삼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 케냐 반정부 시위 확산…우간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시위 예고

케냐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우간다, 나이지리아 등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국내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해 25일 전했다. 우간다 당국은 케냐 반정부 시위의 영향을 받은 반부패 시위가 벌어지자 강경 대응으로 이를 억눌렀다. 나이지리아에서도 다음 달 1일 치솟는 생활비에 항의하고 경제난 해결을 촉구하는 청년 주도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 당국이 강경 진압을 경고했다.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대부분 35세 미만 청년들로, 최근 케냐의 Z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에 영감을 받아 소셜미디어에서 '부패추방'(#StopCorruption)이라는 해시태그로 시위를 조직했다. 한편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6주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등으로 지금까지 최소 50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부상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5:21-23)

하나님, 아프리카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케냐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우간다와 나이지리아로 번져가는 일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다툼과 분냄이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진리로 이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이 일을 교훈 삼아 겸손함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세대가 영혼에 가장 좋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여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선포되는 아프리카로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프랑스 교회들, 올림픽 개막 맞춰 복음 전파 위한 네트워킹 구성

오는 7월 26일, 프랑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연합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있다고 복음주의포커스가 17일 전했다.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연합체인 앙상블 2024(Together)는 “올림픽 기간 동안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교회, 사역 단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이 단체의 전국 코디네이터인 매튜 글록(Matthew Glock)이 말했다.

수도 파리를 포함한 약 10개 도시의 실무 그룹이 스포츠, 사회적 지원, 음악, 예술, 전도 캠페인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 활동으로 그르노블에서는 배구 대회, 콘서트, 하이킹의 날, 축구 대회, 연합 기도회, 전도 자료 배포, 야외 축제 등 일주일 내내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또한 르메 쉬르 센 강에서는 복음주의 교회가 주최하는 4일간의 어린이 게임도 있다.

매튜 글록은 앙상블 2024는 단지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교회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보다 협력함으로써 더 큰 잠재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앙상블 2024 운동에서 기도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프랑스 전국복음주의자협의회(CNEF)는 앙상블 2024 운동에서 기도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기도연대(International Prayer Connect)와 함께 글로벌 기도 캠페인이 시작될 예정이다.

매튜 글록은 해외에서 파리 올림픽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공유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합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열매: 올림픽 기간 동안의 협력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프랑스에서 복음을 위한 교회와 사역이 협력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편 67:1-3)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진행되는 올림픽 기간을 선교의 기회로 삼아 교회와 사역 단체, 개인이 연합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안에 능력이 된 십자가가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프랑스와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이 일이 단기간의 행사처럼 끝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네팔 카트만두 공항서 여객기 추락‥탑승자 19명 중 18명 사망

네팔 현지 항공사의 소형 여객기가 수도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계곡으로 추락, 탑승자 19명 중 1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신문 히말라얀타임스와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는 사우리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날 오전 11시께 승무원 2명과 해당 항공사 직원 17명을 태우고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휴양 도시인 포카라로 가기 위해 이륙하던 중 일어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여객기가 활주로 남단에서 이륙하던 중 갑자기 뒤집히면서 한쪽 날개가 땅바닥에 부딪혔다. 이어 불이 난 여객기가 활주로 동쪽에 있는 계곡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조종사(37)를 제외한 18명이 사망했다. 사고기는 20년이 넘은 낡은 비행기로 이날 포카라로 가서 정비 받을 계획이었고 일반 탑승객은 없었다. 히말라야산맥에 자리한 네팔에서는 불충분한 비행훈련과 항공기 정비 부실 등으로 여객기와 헬기 추락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다른 네팔 항공사인 예티 항공 소속 여객기가 포카라에서 착륙하던 중 추락해 탑승객 72명 전원이 숨졌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로마서 8:24-25)

하나님, 여객기 추락으로 인해 한순간에 여러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주께 올려드리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때 네팔에 참된 소망을 찾는 목마름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생의 삶은 짧으며 언제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네팔의 영혼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된 세계관으로 눈을 가린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네팔의 교회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서 모든 영혼이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 태국, 성인용 장난감·음란물 제작 합법화 추진 논란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24일 방콕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리얼돌' 등 성 관련 용품 판매·구매도 가능하게 된다. 전진당은 관련 사업을 양지로 꺼내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베드로후서 3:3,17)

하나님, 들끓는 죄의 정욕을 따라 악을 향해 멈출 수 없이 달려가는 것 같은 태국을 엄히 책망하사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금만 생각해도 예견되는 온갖 폐해들을 모르는 체하고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말로 미혹하는 이들의 모든 간계를 파하시고, 법 개정이 무산되게 하소서. 정욕을 거슬러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을 조롱하는 악한 세대 속에서 태국 교회가 더욱 깨어 진리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